

# 실적악화 증권사 몸집 줄이기…해고 광풍 부나

지점 1년새 98개 감소 임직원 729명 줄어  
대우증권 희망퇴직 접수…3월 본격화 전망

국내 증권사 지점 수는 1년 만에 100개 가까이 줄었다. 지점 통폐합으로 보직 수가 감소하면서 기존 직원들은 퇴사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의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업계 1위인 대우증권이 희망퇴직자를 신청받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2012년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가 끝나는 3월께 ‘인력 감원 광풍’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은행, 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

업계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 있다. 특히 조선, 해운, 건설 등은 물론, ‘엔저·원고’에 취약한 대기업과 하청 중소업체 등이 직격타를 맞으면서 감원압력은 빠르게 팽창할 수 있다.

◇ 증권사 지점 1년 만에 98개 줄어 = 4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협회에 등록된 62개 증권사 지점 수는 모두 1681개로 집계됐다. 2011년 9월 말에 집계된 지점 수는 1779곳이다. 1년 만에 98곳이 사라졌다.

지점 수를 가장 많이 줄인 곳은 미

래에셋증권으로 39곳이 감소했다. 동양증권도 20곳을 없앴다. 지난해 한화증권과 한화투자증권(옛 푸르덴셜 투자증권)이 합병하면서 기존 119개였던 지점은 103곳으로 16개가 줄었다. 이 밖에 메리츠증합금융증권(11개), 한국부자증권(6개), 대신증권(5개)도 지점을 축소했다.

작년 말에도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증권사들의 지점 축소가 이어졌다. 현대증권은 작년 10월에 5개 지점을 통폐합했고 하나대우증권(12개), 유진투자증권(4개)도 지점을 줄였다.

◇ 3월 증권사 ‘감원 광풍’ 불어울 듯 = 업계 관계자들은 증권가의 구조조정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올해도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월 결산법인 중 연결실적을 제출한 증권사 17곳의 작년 4~9월 영업이익은 4540억원으로 전년 동기(7672억원)보다 40.8% 줄었다. 같은 기간 국내 62개 증권사의 임직원 수는 4만3091명으로 729명이 감소했다.

업계는 증권사의 2012 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께 ‘인력감원 광풍’이 닥칠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증권사의 구조조정은 대체로 ▶조직개편 ▶영업지점 통폐합 ▶인력감원의 세 단계를 거친다. 지난해 지점 통폐합까지 진행했으니 올해는 인력감원만이 남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업계 ‘자기자본 1위’, ‘당기순이익 1위’인 대우증권이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것을 신호탄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지금까지는 ‘찻잔 속 태풍’이었던 증권사 인수합병(M&A)이 3월 이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트레이드증권, 아이엠투자증권, 애플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등이 매물로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간 차·과장급 7년차 이상과 부장 1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업계는 1위 회사가 공개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 다른 증권사들도 줄줄이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에 나서 감원이 본격화될 것이라 전망에 긴장하고 있다.

계약직이 많은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대규모 인력 감원도 예상되고 있다.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직원들은 그대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

지금까지는 ‘찻잔 속 태풍’이었던 증권사 인수합병(M&A)이 3월 이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트레이드증권, 아이엠투자증권, 애플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등이 매물로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주)광주신세계 지하 1층 식품매장 선물세트 코너에서 한 고객이 건강식 품을 살펴보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 설선물 ‘실속형’이 대세

백화점 10만원대 미만 세트 매출 전년비 15% ↑

올해는 고기가 여파로 백화점에서

도 5만~10만원대 실속형 선물세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선물세트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일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유신일)가 지난달 25일부터 3일까지 설 선물세트 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만원대 미만 중저가형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설 선물세트 판매기간과 비교해 약 15% 늘었다.

장기불황에 고기가 여파로 백화점에서도 고기의 프리미엄 선물세트보다는 중저가 알뜰 선물세트를 찾는 고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젊은 고객들의 경우 힐링·웰빙 열풍으로 건강에 좋은 친환경 견과세트나 홍삼, 비타민 등 건강식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10만원 미만의 홍삼절편, 홍삼진액은 지난해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 기간과 비교해 13% 가량 매출이

증가했다.

40~50대 중장년층은 백화점 선물세트 구매고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비층으로 구매력이 높아 10만~20만원대 ‘프리미엄 한우세트’를 많이 찾았다. 특히 올해는 10만원대 실속형 한우세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5% 늘었다.

60대 이상의 경우 굴비세트를 선호했다. 굴비세트의 경우 제수용품을 준비하려는 고객들에게도 인기를 끌며 매출이 같은 기간 대비 20% 가량 증가했다.

광주신세계 식품 바이어는 산지를 직접 방문해 기획한 10만원, 12만원, 15만원대 굴비세트가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백화점측은 덧붙였다.

조승식 광주신세계 식품팀장은 “설 명절 선물세트를 알뜰하게 준비하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해 10만원대의 중저가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기획해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 근로자 절반 퇴직연금 가입

상용근로자 2명 가운데 1명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67조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4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438만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952만명)의 46%에 달했다.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은 67조3000억원으로 2011년 말 49조9000억원보다 17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05년 말 도입된 퇴직연금 적립금은 2009년 11월에 10조원을, 2010년 9월에 20조원을, 2011년 1월에 30조원을 각각 돌파하고 2011년

말 50조원에 근접하는 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률도 2007년 5.8%

에서 2008년 10.4%, 2009년 15.8%

로 5%포인트 정도씩 증가하다가

2010년 25.1%, 2011년 34.5%, 지난해 46%로 수직 상승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

(152만곳)의 18.4%인 20만곳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도입률은 500인 이상 86.5%, 300~499인 61.3%, 100~299인 48.9%, 30~99인 38.3%, 10~29인 29.9%, 10인 미만 9.6%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설 체감경기 좀 어떻습니까?”

송기진 광주은행장 시장상인 애로사항 청취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설을 맞아 4일부터 15일까지 수수료 면제 및 현금 보관업무 등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실시한다.

‘창구 효도송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는 오는 15일까지 은행 창구에서 부모님께 100만원 이하를 효도 송금하는 경우 송금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또한 광주은행 본

월복리적금’에 가입할 경우 0.1% 포인트 추가금리를 지급한다.

한편 이날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민족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4일 오후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밀비우 시장’을 방문해 재래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행장은 사과 등 제수용품을 직접 골라 전통시장 운동리 상품권으로 구입하고, 시장상인들과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ju.co.kr

## 전남농협, 설 농산물 직거래장터 21곳 운영

최고 30% 저렴

태풍, 혹한 영향으로 과일, 채소가 격이 급등해 차례상 차리는 것이 고민이 된다면 농·수·축산물을 싸게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잘 활용하면 된다.

지역 생산자들이 직접 세배한 신선한 농산물을 최대 30%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다.

4일 전남농협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우리 농축산물과 제수용품의 가격 안정을 위한 직거래장터를 광주·전남지역 21곳을 운영한다.

직거래장터는 광주시 동구 동구청 인근 KT정보센터 광장(7일까지)과 무안군 남신안도시에 위치한 하나로 클럽 남악점 광장(〃)을 비롯해 나주

점 PB센터(3층)와 상무 PB센터, 하남공단지점, 순천지점, 목포지점 등 5개 영업점의 대여금고를 무료 운용해 명절 기간 동안 귀중품을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주은행은 자녀들의 세뱃돈 저축을 통한 저축의식을 높이기 위해 만 20세 미만 고객이 ‘KJB아이랑월복리적금’과 ‘KJB파어

30% 싸게 판다.

4일 개장한 하나로클럽 남악점 장터에서는 (사)한국여성농업인 전남연합회 주관으로 가래떡을 구운 시식 행사와 함께 떡국 떡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은미기자 emlee@

통관시스템 24시간 운영

관세청 설 연휴 9~11일

채용자는 5개월간 영업점 근무 후, 내규상 채용결과사유가 없고 근무성적 등이 평가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신용조증기금은 4일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본부점장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근무인력을 늘려 장애발생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재정비해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신보, 정규직 전환 청년인턴 공채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2013년도 상반기 정규직전환 청년인턴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총 50명이며 입사지원서는 오는 12월까지 신용보증기금 채용 홈페이지(<http://recruit.kdb.co.kr>)를 통해 자기소개서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과 필기 및 면접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2월 말에 발표 할 예정이다. 금번

채용자는 5개월간 영업점 근무 후, 내규상 채용결과사유가 없고 근무성적 등이 평가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신용조증기금은 4일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본부점장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근무인력을 늘려 장애발생

## 2013 설날장사씨름대회

기간 : 2013년 2월 8일(금)~2월 11일(월) [4일간]  
장소 : 굴비세트 판매점  
개회식 : 2013년 2월 8일(금) 오후 2시  
관람시간 : 매일 오전 11시부터(무료입장)

초청가수 · 초청공연

경품추첨 (매일 경품추첨)

한국전통무용 및 인기가수 축하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TV, 세탁기, 김치냉장고, 자전거, 쌀 등  
\* 위 이미지와 상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대회는 무료입장이며, 입장권은 월영체육관 정문에서 배부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초·중·고등학생 관람시 1일 2시간 봉사실적 인정

중계방송 : KBS 한국방송 – 1TV에서 2월 8일(금)~11일(월) (4일간) 매일 오후 2시부터 중계방송 되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